

JC가 발표한 섬유제품의 2002년 추동 트렌드

JC(Japan Creation)는 일본의 섬유제품에 참신한 창의성을 담은 차별화된 새로운 소재나 상품을 발굴하고자 하는 행사로서 “제5회 JC 2002” 전시회가 2001년 12월 5일부터 3일간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제5회 전시회의 트렌드(trend)위원회는 “02 추동 트렌드”로서 “수(愁)”, “관(寬)”, “늪(凜)”과 “희(戲)”의 4자를 테마로 발표하였다.

“수(愁)”의 이미지(image)는 가을이나 겨울철의 “시름”이나 “근심”, “로맨틱(romantic : 낭만적)”, “엘리건스(elegance : 우아하고 품위가 있는)” 등으로 마음 속에 그려지는 모습은 우아한 노스탤지어(nostalgia : 향수), 텔리키트(delicate : 섬세한)하면서도 기품(氣品)이 있거나 침착한 어른스러움 등을 떠올리게 한다.

소재로서는 따스함과, 가볍게 등실 떠 있는 느낌, 부드럽거나 표면에 털이 많거나 꼬임이 적은 원사를 제안하며, 색깔은 약간 바랜 듯한 페일·칼러(pale color) 등을 나타낸다.

“관(寬)”은 너그럽고 느긋하며, “내추럴(natural : 자연스러운)” 또는 “릴랙스(relax : 긴장을 풀고 편안한)”를 뜻하며, 퍼스널(personal : 개인적)한 충실감, 온화하면서 마음이 편하고, 심신(心身)에 모두 좋은 품질을 원하며, 어느 정도 분에 넘치는 사치스러움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낸다. 촉감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소재, 수모(獸毛)소재, 울이 굵고 성긴 능직(綾織)의 트위드(tweed)나 홈스펀(homespun), 소박한 수공예품 같은 느낌이나 내추럴한 느낌을 나타낸다.

“늪(凜)”은 날카로운 이미지로서 “멋쟁이”나 “남자 옷같은 여자 옷”, 군복이나 작업복, 샤프(sharp)하면서도 뚜렷한 이미지로, 치밀하게 짠 들어찬 “콤

팩트(compact)”한 소재, 세번수 실의 고밀도 직물, 남자 양복용 소재 등을 전개한다.

“희(戲)”는 생생하게 살아 있으면서 낙천적이고 쾌활하며, 싱싱한 이미지로서 색상은 많은 색을 각기 다양하게 배치한 프린트나 정력이 넘쳐흐르는 강한 색을 나타낸다.

또한 “03 춘하 트렌드”에는 맑고 시원하며 미래의 로맨틱한 “상(爽)”,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나타내는 “관(寬)”, 부드러우면서도 찬 기분을 느끼게 하는 “늠(凜)”, 즐거움과 즐거움을 포개 “슈퍼임포즈(superimpose)”의 “유(愉)”의 4글자를 테마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트렌드의 발표와는 별개로 JC가 독자적인 관점에서 “WHAT'S NEW 코너”의 독창적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테마는 천연식물염료와 그의 배리에이션(Variation : 변화)의 그룹으로서 홍화(紅花 : 잇꽃), 녹차, 밤, 사프란(saffraan) 등의 “베지타블 · 다이닝(vegetable dyeing)”, 둘째 테마는 광물(鑛物)염료, 진흙 염색, 마이너스 · 이온(minus ion) 발생효과가 있는 소재 등의 “미네럴 · 다이닝(mineral dyeing)”, 셋째 테마는 여러 가지 진화(進化)를 이루는 나일론을 소개하는 “나일론 · 뷰(nylon view)”이고, 넷째 테마는 새로운 무브먼트(movement)에 기대를 거는 “섬싱 · 뉴(something · new)”의 소재를 내놓고 있다.